

#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조명숙<sup>1</sup>, 김지홍<sup>2\*</sup>

<sup>1</sup>동강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 The Effect of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Non-face-to-face class

Myeong-Suk Cho<sup>1</sup>, Ji-Hong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nggang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N지역과 P지역에 소재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245명이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코로나우울( $r=-.226, p<.01$ )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r=.372, p<.01$ )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r=.290, p<.01$ )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성향, 학업성적, 비대면 수업 도움 유무가 학업성취도에 대해 19.9%( $F=13.155, p<.001$ )의 설명력을 보였고,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각각 2.8%와 3.4%의 유의미한 증분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 시 학생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수업전략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who had an experience with non-face-to-face learning. A total of 245 nursing students living in areas N and P who had experienced learning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cademic achievemen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OVID-19 depression ( $r=-.226, p<.01$ ), while the sub-factors of self-efficacy, the general self-efficacy ( $r=.372, p<.01$ ) and social self-efficacy ( $r=.290, p<.01$ ),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jor satisfaction, personality orientation, academic performance and non-face-to-face class help-level showed an explanatory power of 19.9% ( $F=13.155, p<.001$ )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COVID-19 depression and the general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of 2.8% and 3.4%,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nursing students with a range of online learning programs and class strategies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student to help them reduce depression, increase self-efficacy and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Keywords** : Non-Face-to-Face Class,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Ji-Hong Kim(Chosun Univ.)

email: hongyaa@hanmail.net

Received December 6, 2021

Accepted March 4, 2022

Revised December 30, 2021

Published March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코로나 19가 확인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에는 팬데믹을 선포하고 초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다가 2020년 2월 20일 COVID-19로 명칭을 변경하였다[1]. 2021년 12월 2일 현재 세계 국가의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는 총 263,817,234명이며 사망자는 5,243,855명이며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57,612명, 누적 사망자는 3,705명이다[2].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는 충격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봉쇄조치와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은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과 경제활동 침체로 경제하락과 실업률이 심화되고 있다[1].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새로운 학습방식에 대한 혼란, 고립감, 인터넷 과다사용 등을 경험하고 있다[3].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교육부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업에 대해 자신감 부족, 흥미저하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학업성취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4]. 대학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 강좌수는 12,222개에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2020년에는 339,125개로 전년대비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 비대면 수업 이후 대학생들은 교수자와 상호작용 어려움, 집중도 낮음, 학습 미루기, 웹 장애, 실시간 소통 어려움, 참여도 낮음 등을 단점으로, 학습참여의 용이성, 시간사용의 자유로움, 자기주도적 학습가능성, 절대평가 등의 긍정적 측면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2020년 3.09에서 2021년은 3.72로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수자는 수업자료 준비, 매체활용방법, 피드백제공, 수업운영방식에 대한 어려움은 감소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집중력저하와 과제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면서 갑작스런

수업방식의 변화로 인한 불편감, 학습에 대한 집중력저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8]. Lim[9]의 간호대학생 비대면 임상실습 연구에서 학생들은 비대면 임상실습을 통해 양가감정과 예비 간호사로서의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임상상황경험과 반복학습을 통해 임상실습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였다. Zeliha 등[10]은 간호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 학습의욕 저하, 온라인 수업의 지루함을 느끼며 임상현장 실습부족으로 인해 간호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는 아쉬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주는 시간적 여유로 자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연구 결과는 다양하며 일반대학생들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간호사 부족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런 확산이 가중되면서 다양한 임상 현장의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에 이르기까지 돌봄을 제공할 간호사가 더욱 부족한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간호사와 재난 상황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간호사의 인력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공감하고 있다[11].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돌볼 역량 있는 간호사는 간호대학의 교육과 직결되며 교육과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간호대학은 유례없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가 수업을 통하여 정보나 기술을 습득한 능력을 의미한다[12].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공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학과 만족도 높지만,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 새로운 외부의 변화나 자극에 대해 더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처럼 학업성취도는 힘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4].

자기효능감은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이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15].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학생활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 일반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공 학습량과 국가고시 준비로 학업 부담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소진예방에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

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였으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학업중단과 중도이탈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18].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우울은 심각한 경우 흥미와 의욕을 상실시켜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한다[19].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은 기존의 우울과는 다른 일상생활의 큰 변화로 인한 불안, 우울감,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코로나우울을 경험하고 있다[20]. 2021년 6월에 실시한 2분기 '전국 성인 대상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우울 위험군이 3.2%였으나 2021년 6월 조사결과 18.1%로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우울 위험군이 24.3%, 30대 22.6%로 청년층의 코로나우울이 50~60대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21]. 대학생의 비중이 높은 20대의 코로나우울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활발하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 제한과 관계 단절,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이 코로나우울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21].

간호대학생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감, 절망감, 고립감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10],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은 코로나우울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학업성취도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 학습참여와 관련된 연구[23], 학습참여에 따른 차이 연구[24], 학습동기와 학습몰입 연구[25]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온택트 시대 간호교육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이해를 확장하고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본론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N지역, P지역 소재 4개 대학의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비대면 수업을 1년 이상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후 수집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245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이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크기 .15로 독립변수 19개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수는 217명으로 산정되어 본 연구는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코로나우울

Park 등[26]이 개발한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를 2020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코로나우울 측정에 사용하였다[27]. 총 9문항으로 Likert식 척도로 '없음(0점)'에서 '거의매일(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절단값으로 '1-4점 우울 아님', '5-9점 경증 우울', '10-19점 중등도 우울', '20-27점 중증 우울'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 앞에 'COVID-19'로 인해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일반적 우울

이 아닌 코로나 우울을 측정함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Park 등[2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Shere 등[28]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Hong[2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하위 영역은 일반적 자기효능감(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29]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alpha$ 는 .86, 하위요인별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6,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alpha$ 는 .89, 하위요인별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8,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72였다.

### 2.3.3 학업성취도

Rovai 등[30]이 개발한 학업성취도를 Park 등[31]이 수정·보완한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 CAP)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3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72였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2021년 08월 31일 승인(IRB No:1040708-202106-SB-033)을 받고 2021년 0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N 지역과 P지역에 소재한 4개 간호대학의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이해 상충관계가 없는 간호 대학의 교수가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비밀유지, 익명성, 참여 방법, 참여의 자율성, 중도 취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 하였다. 설문 시간은 약 20분 내외였으며 설문지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 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2.6 연구결과

### 2.6.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학생이 204명(82.9%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30세가 110명(86.1%)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이상인 경우가 165명(67.4%)이었으며 내향적인 성격으로 응답한 경우가 143명(58.4%),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2명(41.6%)이었다. 학업성적은 '3.0~4.0미만'이 174명(71%)로 가장 많았고, 4.0이상인 경우는 28명(11.4%)이었다. 학과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가 87명(35.5%)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35명(55.1%)이었다. 비대면 수업 도움 유무는 '도움이 된다' 이상으로 대답한 경우가 115명(46.9%)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53명(21.6%)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45)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2(17.1)
	Female	203(82.9)
Age	20-25	159(64.9)
	26-30	52(21.2)
	31-35	4(1.6)
	36-40	9(3.7)
	40≤	21(8.6)
Grade	2nd	31(12.7)
	3rd	60(24.5)
	4th	154(62.8)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60(24.5)
	Satisfied	105(42.9)
	Moderate	74(30.2)
	Dissatisfied	6(2.4)

Perceived character	Introvert	143(58.4)
	Extrovert	102(41.6)
Academic score	2.0~3.0 $\geq$	43(17.6)
	3.0~4.0 $\geq$	174(71.0)
	4.0 $\leq$	28(11.4)
Motivation for entering	Aptitude	87(35.5)
	Employment rate	74(30.2)
	Family & others	44(18.0)
	Professional	40(16.3)
Health status	Very healthy	34(13.9)
	Healthy	101(41.2)
	Moderate	84(34.3)
	Not healthy	26(10.6)
Non-face-to-face class help-level	Very help	29(11.8)
	Help	86(35.1)
	Moderate	77(31.4)
	Not help	37(15.2)
	Not help at all	16(6.5)

2.6.2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코로나우울 전체 평균은 5.67 ( $\pm$ 4.88) 점이었으며, '0~4점 우울이 아님'이 48.2%로 가장 높았고, '5~9점 경증 우울'이 34.3%, '10~19점 중등도 우울'이 15.9%, '20~27점 중증 우울'이 1.6%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66.88( $\pm$ 7.50)점이었고, 하위요인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57.15( $\pm$ 9.52)점, 사회적 자기효능감 19.43( $\pm$ 3.94)점이었다. 학업성취도 평균은 27.67 ( $\pm$ 4.67)점 이었다(Table 2).

2.6.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차이

코로나우울은 성별( $t=-2.464$ ,  $p=.014$ ), 학업성적( $F=8.209$ ,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분석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코로나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하위변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전공 만족( $F=6.635$ ,  $p<.05$ ), 성격성향( $t=-4.438$ ,  $p=.000$ ), 학과선택 동기( $F=4.515$ ,  $p<.05$ ), 비대면 수업 도움유무( $F=3.529$ ,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 $F=8.563$ ,  $p<.05$ ), 성격성향  $t=-8.612$ ,  $p=.000$ ), 건강상태( $F=3.577$ ,  $p<.05$ ), 비대면 수업이 도움 된다( $F=2.878$ ,  $p<.05$ )고 생각할수록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학과선택 동기가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인 경우,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성별( $t=2.1260$ ,  $p=.027$ ), 전공만족도( $F=9.453$ ,  $p<.05$ ), 성격성향( $t=-4.257$ ,  $p=.000$ ), 학업 성적( $F=8.209$ ,  $p<.05$ ), 건강상태( $F=2.710$ ,  $p=.046$ ) 비대면 수업 도움유무( $F=2.848$ ,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 외향적 성격이라 생각하는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2.6.4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요인의 상관관계

Table 2. Mean of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N=245)

Variables	N(%)	Min	Max	M(SD)
COVID-19 Depression		0	27	5.67(4.88)
Normality(<4)	118(48.2)			
Mild(5~9)	84(34.3)			
Moderate(10~19)	39(15.9)			
Severe( $\geq$ 27)	4(1.6)			
Self-efficacy		41	90	66.88(7.50)
General Self-efficacy		37	85	57.15(9.52)
Social Self-efficacy		8	30	19.43(3.94)
Academic Achievement		9	41	27.67(4.67)

Table 3. Differences of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5)

Variables	Categories	N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M±SD	t or F(p) Scheffe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42	4.000(4.428)	-2.464(.014)	58.404(8.401)	.938(.349)	19.381(3.319)	-.093(.926)	29.095(4.471)	2.260(.027)
	Female	203	6.019(4.915)		56.891(9.730)		19.443(4.066)		27.369(4.660)	
Age	20-25	159	5.584(4.973)	.356(.839)	56.679(9.548)	2.175(.072)	19.371(4.207)	1.771(.135)	27.735(4.632)	.494(.740)
	26-30	52	5.769(4.663)		56.326(8.866)		18.826(3.116)		27.365(4.686)	
	31-35	4	5.250(4.112)		58.000(7.438)		19.750(2.629)		25.000(2.828)	
	36-40	9	4.555(2.877)		56.444(8.032)		19.111(3.620)		28.555(6.616)	
	40≤	21	6.666(5.730)		62.904(10.563)		21.476(3.641)		28.000(4.370)	
Grade	2nd	31	4.645(5.907)	.872(.420)	56.709(8.756)	.060(.942)	19.193(2.508)	.112(.894)	28.741(2.502)	1.789(.169)
	3rd	60	5.600(4.709)		57.433(10.343)		19.600(4.154)		26.850(4.660)	
	4th	154	5.909(4.733)		57.129(9.385)		19.415(4.107)		27.766(4.959)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60	5.133(4.813)	.333(.801)	60.700(10.310)	6.635(.000) ab)c	21.500(4.131)	8.563(.000) a,b)c	29.733(4.606)	9.453(.000) a)c,d
	Satisfied	105	5.790(5.130)		57.676(8.945)		19.076(3.911)		27.876(4.214)	
	Moderate	74	5.932(4.617)		53.743(8.852)		18.391(3.363)		26.013(4.688)	
	Dissatisfied	6	5.833(5.307)		54.500(4.460)		17.833(.752)		23.666(3.076)	
Perceived character	Introvert	143	5.909(4.554)	.893(.373)	54.909(8.625)	-4.438(.000)	17.804(3.287)	-8.612(.000)	26.629(4.692)	-4.257(.000)
	Extrovert	102	5.343(5.322)		60.294(9.854)		21.715(3.651)		29.117(4.238)	
Academic score	2.0~3.0≥	43	25.767(5.601)	8.209(.000) a)b<c	54.790(9.718)	2.891(.057)	19.581(3.774)	.790(.455)	25.767(5.601)	8.209(.000) a)b<c
	3.0~4.0≥	174	27.724(4.333)		57.229(9.372)		19.264(3.833)		27.724(4.333)	
	4.0≤	28	30.214(3.881)		60.285(9.470)		20.250(4.819)		30.214(3.881)	
Motivation for entering	Aptitude	87	5.528(5.218)	.697(.555)	60.034(9.951)	4.515(.004) ab)c	20.103(4.459)	1.465(.225)	27.689(5.058)	1.752(.157)
	Employment rate	74	5.594(4.856)		55.337(7.851)		19.108(4.113)		28.432(4.719)	
	Family & others	44	5.204(4.212)		55.045(9.610)		18.750(3.424)		26.409(4.122)	
	Professional	40	6.650(4.933)		56.550(10.045)		19.325(2.654)		27.575(4.050)	
Health status	Very healthy	34	5.323(5.708)	2.369(.071)	59.617(10.206)	1.349(.259)	21.235(3.701)	3.577(.015) a)c	28.000(6.247)	2.710(.046)
	Healthy	101	4.960(4.284)		57.524(9.781)		19.396(3.630)		28.455(4.023)	
	Moderate	84	6.071(4.715)		55.881(8.504)		18.666(4.160)		27.131(3.935)	
	Not healthy	26	7.615(6.007)		56.576(10.446)		19.692(4.116)		25.884(6.147)	
Non-face-to-face class help-level	Very help	29	6.379(5.460)	2.244(.065)	54.896(8.881)	3.529(.008) b)c	19.586(3.886)	2.878(.023) b)c	27.241(6.092)	2.848(.025) c)e
	Help	86	5.848(4.997)		59.279(9.849)		20.255(3.947)		28.965(4.159)	
	Moderate	77	5.337(4.703)		55.013(9.157)		18.363(3.645)		26.779(4.655)	
	Not help	37	4.270(3.194)		59.594(8.655)		19.108(3.702)		27.378(3.925)	
	Not help at all	16	8.312(6.374)		54.437(9.486)		20.625(4.951)		26.375(4.883)	

\*p<.05 \*\*p<.01 \*\*\*p<.001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는 코로나우울( $r=-.226,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r=.372, p<.01$ )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r=.290, p<.01$ )은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2.6.5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에 대한 가정을

검정한 결과에서 Durbin-watson지수가 1.819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517~.978로 모두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22~1.934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일반적 특성변인을 투입했을 때, 성별( $\beta=.213, p<.001$ ), 전공만족도( $\beta=.211, p<.001$ ), 성격성향( $\beta=-.229, p<.001$ ), 학업성적( $\beta=-.210, p<.001$ ), 비대면 수업 도움유무( $\beta=-.164,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13.155, p<.001$ ), 회귀모형 설명력은 19.9%였다. 모형2에서 코로나우울을 추가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

Table 4. Correlations among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N=245)

Variables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COVID-19 Depression		1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271**	1		
	Social Self-efficacy	-.089	.593**	1	
Academic Achievement		-.226**	.372**	.290**	1

\*\*p<.01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ted variables on Academic Achievement (N=24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t	p	B	$\beta$	t	p	B	$\beta$	t	p
Gender	2.627	.213	3.629***	.000	2.247	.182	3.104**	.002	2.082	.169	2.924**	.004
Major Satisfaction	2.098	.211	3.619***	.000	2.052	.207	3.598***	.000	1.662	.167	2.908**	.004
Perceived character	-2.162	-.229	-3.936***	.000	-2.055	-.218	-3.794***	.000	-1.460	-.155	-2.421*	.016
Academic score	-2.564	-.210	-3.566***	.000	-2.334	-.191	-3.279**	.001	-2.164	-.177	-3.066**	.002
Non-face-to-face class help-level	-1.529	-.164	-2.830**	.005	-1.608	-.172	-3.021**	.003	-1.407	-.151	-2.668**	.008
COVID-19 Depression					-.164	-.172	-2.976**	.003	-.120	-.125	-2.138*	.034
Self-efficacy									.089	.182	2.488*	.014
General Self-efficacy									.052	.044	.570	.569
Social Self-efficacy												
Adjusted R2		.199				.225				.254		
$\Delta R2$		.216				.028				.034		
F(p)		13.155***(.000)				12.799**(.003)				11.384**(.004)		

\*p<.05 \*\*p<.01 \*\*\*p<.001

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F=12,799, p<.01), 회귀모형 설명력은 22.5%였다. 모형3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투입했을 때,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1.384, p<.01). 회귀모형 설명력은 25.4%이었으며, 이는 모형1에 비해 5.5%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학업성취도의 영향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성향, 학업성적, 비대면 수업 도움유무로 학업성취도에 대해 19.9%(F=13.155, p<.001)의 설명력을 보였고,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각각 2.8%와 3.4%의 유의미한 증분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2.7 논의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온택트 시대 간호교육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과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와 학과만족도가 높고,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수업의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3,25]. 이러한 특성은 간호사의 직무가 여성중심의 업무라는 사회적 인식이 우세하여 여성이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으며,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과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이 17.5%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코로나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Ugurlu 등[32]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DASS-42 척도를 사용한 우

울연구에서 중등도 우울증상을 21.7%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Vitale 등[33]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PHQ-9로 측정된 간호대학생 우울은 정상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이 더 높고 성적이 낮은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34]의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 수업 시 학생들의 개인별 우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우울에 취약한 여학생의 경우 멘토링을 통한 관심과 개인상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서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하위변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외향적 성격이라 한 경우, 입학동기가 적성과 흥미에 맞고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연구[23,35,36]에서 면대면 수업시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23]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간호대학생 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기존의 면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유사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는데 이는 비대면 수업의 특성으로 교수자와 학생간, 학생들 상호간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이 제한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로 유추된다. 이에 비대면 수업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교과목 운영시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활용한 수업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하도록 온라인 특강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남성인 경우, 전공 만족도가 높고 외향적 성격이라 생각한 경우, 성적이 높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수업 시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선행연구

[23-25]의 결과와 부분 유사하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적, 건강상태와 긍정적 사고가 비대면 수업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체 재직 인사의 온라인 특강을 통한 비전제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대면 수업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수성과 한계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적 수업참여가 성적향상에 중요한 만큼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수업에 임하도록 철저한 출석관리와 수업태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일상생활 관리를 독려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코로나우울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34]의 연구에서 우울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낮았으며, Kim[23]의 간호대학생 비대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우울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8]의 연구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 시 우울이 지속되는 간호대학생은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울은 학업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중등도이상의 우울이 높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선 각 교과목에 대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학습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비대면 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감소시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교수자는 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명확한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겠다. 더불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밴드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과 신속한 피드백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성향, 학업성적, 수업도움 유무로서 남학생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외향적인 성격이라 한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경우 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비대면 연구[14,23,25]에서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적이 높고,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연구[37]에서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본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의 우울이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울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연구[34]의 결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 시 개인적인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과 교수학습법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야 하겠다. 교수자는 학업성취 평가에 있어서도 시험을 통한 평가뿐 아니라 온라인 상황이지만 개인과제와 팀 과제의 균형을 통해 학생들 상호간 학습에 대한 교류를 촉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면대면 수업과는 다른 수업설계와 수업운영 방식을 고민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업성취 미달성 학생에게는 개인별 미달성 이유를 분석하여 추가학습과 단계별 과제를 통해 학업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시 상담을 통한 세심한 관심과 격려가 중요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비대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적용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비대면 수업에서 이론교과목과 실습교과목의 학업성취 차이 연구를 제언한다.

### 3. 결론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비대면 수업의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코로나우울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성향, 학업성적, 비대면수업의 도움 유무로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성격성향이 외향적인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경우 이었다.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울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학습에 있어 중요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Issue 2021-5, COVID-19 Damage Status, Other reports, Korea, pp.1-18.
- [2] Our World in Data & JHU CSSE COVID-19 Data, Coronavirus Pandemic (COVID-19)-the data, Statistics and Research [Internet]. c2021[cited 2021 December 2]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data>(accessed Dec. 2, 2021)
- [3] H. S. Choi, "A Study on the Non-face-to-face Teaching Experience of College Freshmen du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1, pp.273-286, 2021.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1.15.1.273>
- [4]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2020 national level academic achievement evaluation, Press Release,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Curriculum Evaluation Institute, Korea, pp.1-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459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5]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Presidents, University distance lectures status (2018~2020) [Internet]. c2021[cited 2021 October 1] [http://kapup.org/sub/sub03\\_02.php?boardid=edu2&mde=view&idx=138&sk=&sw=&offset=&category=%ED%95%99%EC%83%9D&goPage](http://kapup.org/sub/sub03_02.php?boardid=edu2&mde=view&idx=138&sk=&sw=&offset=&category=%ED%95%99%EC%83%9D&goPage)(accessed Nov. 10, 2021)
- [6] H. G. Ju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and testing during the Corona 19 pandemic",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23, No.3, pp.392-412, 2020.
- [7] J. Y. Heo,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es has increased, but that's not the problem. As a result of the survey by the Korean Academy of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Newspaper, c2021[cited 2021 October 19] <https://hibrain.net/braincafe/cafes/48/posts/407/articles/433701>(accessed Oct. 10, 2021)
- [8] C. K. Lee, J. H. Ahn,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ol.21, No.12, pp.142-152,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142>
- [9] S. H. Lim,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ctact er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4, pp.195-205,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4.195>
- [10] C. Zeliha, G. Züleyha, I. Kevser, "Challenge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4, No.10, pp.1111-12923, 2021.  
DOI: <https://doi.org/10.1111/ppc.12923>
- [11] J. Y. Ji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nurses in prepar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Medical Newspaper, [Internet]. c2021[cited 2021 May 13]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44>(accessed Oct. 10, 2021)
- [12] J. I. Lee, J.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1, No.2, pp.227-246, 2012.
- [13] I. T. Croghen, C. Bronars, C. A. Patten, D. R. Schroeder, L. M. Nirelli, J. L. Thomas, M. M. Clark, K. S. Vickers, R. Foraker, K. Lane, D. Houlihan, K. P. Offord, R. D. Hurt, "Is smoking related to body image satisfaction, stress, and self-esteem in young adult?",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Vol.30, No.3, pp.322-333, 2006.  
DOI: <https://doi.org/10.5993/AJHB.30.3.10>
- [14] S. H. Hong, J. S. Kim, D. B. Ju,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9, pp.443-450,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443>
- [15]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9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16] J. H. Kim, H. O. Je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2, pp.123-132, 2016.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2.123>
- [17] H. J. Kim, "The Efect of Self-Eficacy and Social Suport of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on Burnout",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8, pp.314-392, 2020.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0.12.14.8.315>
- [18] H. J. Kim, S. N. Oh, M. S. Jo, "The Effects of Self-efficacy, Depression, and Anger on First Year Students Regarding Their Learning Persistence in Online Classes under Covid-19",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4, No.6, pp.299-308, 2020.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0.14.6.299>
- [19] R. Ross, R. Zeller, P. Srisaeng, S. Yimnee, S. Somched, & W. Sawatphanit, "Depression, stress, emotional support and self-esteem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Thai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25, pp.124-134, 2005.  
DOI: <https://doi.org/10.2202/1548-923X.1165>
- [2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Corona Depression [Internet]. c2021[cited 2021 March 8]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accessed Nov. 10, 2021)
- [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Q2 「Corona 19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Press Releas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Manage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pp.1-9.
- [22] S. K. Cha, O. 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650-658,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650>
- [23] K. A.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Learning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Home-based Co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2, pp.337-345,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2.337>
- [24] E. H. Kim, J. M. Lee,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by Learning Participation Activities: Focused on the Smart Class of A University, which is a non-face-to-face class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34, No.6, pp.1-21, 2020.  
DOI: <http://doi.org/10.34274/krabe.2020.34.6.001>
- [25] J. G. Lee, W. J. Kim, J.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ommi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gave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1, pp.412-419, 2020.  
DOI: <http://doi.org/10.5762/KAIS.2020.21.11.412>
- [26] S. J. Park, H. R. Choi, J. H. Choi, K. W. Kim, J. P. Ho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Anxiety and Mood*, Vol.6, No.2, pp.119-12, 2010.
- [27] S. O. Cho, "HIRAISSUE COVID-19 Depression", *HIRA OAK Repositor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Korea, pp.4-5, 2020.
- [28] M. Sherer, J.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 B. Jacob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No.2, pp.663-671, 1982.  
DOI: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 [29] H. Y. Hong,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pp.1-73, 1995.

- [30] A. P. Rovai, M. J. Wighting, J. D. Baker, & L. D. Grooms,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perceived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learning in traditional and virtual classroom higher education settings".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Vol.12, No.1, pp.7-13, 2009.  
DOI: <https://doi.org/10.1016/j.iheduc.2008.10.002>
- [31] J. H. Park, E. H. Lee, S. H. Bae,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e-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0, No.2, pp.182-190, 202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0.40.2.182>
- [32] Y. K. Uğurlu, D. M. Değirmenci, H. Durgun, & H. Gök Uğur,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levels and restrictive, emotional, and external eating behaviors in COVID-19 social isolation proces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57, No.2, pp.507-516, 2020.  
DOI: <https://doi.org/10.1111/ppc.12703>
- [33] E. Vitale, B. Moretti, A. Notarnicola, & I. Covelli, "How the italian nursing student deal the pandemic COVID-19 condition", *Acta Bio Medica: Atenei Parmensis*, Vol.91, pp.1-10, 2020.  
DOI: <https://doi.org/10.23750/abm.v91i12-S.9860>
- [34] E. H.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Depression, Anxiety and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33, No.3, pp.156-163, 2020.  
DOI: <https://doi.org/10.15434/kssh.2020.33.3.156>
- [35] S. H. Yang, I. O. Sim,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5, pp.612-622,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5.612>
- [36] Y. H. Choi, C. S. Jung,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604-4613,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604>
- [37] S. M. Kim, T. Y. Hwang, "Comparison of stress levels arising in clinical settings, stress coping mechanisms and clinical competency between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606-616,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606>

조 명 숙(Myeong-Suk Cho)

[정회원]



- 2021년 8월 :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2021년 8월 :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2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상담심리, 중독분야

김 지 흥(Ji-Ho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21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21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시간강사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아동·청소년, 장애인